

European Green Capital Award

2012년 9월 11일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우대용, 윤희진

목차

I. 서 론

II. 본 론

i) ECGA란?

ii) 역대 환경 수도

iii) Hamburg 방문기

III. 결 론

IV. Appendix - Interview with Marie-Helene Vareille

I. 서 론

환경 문제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유럽연합의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로 올해부터 유럽연합 국가들로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에 탄소세가 부과되어 국내 항공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대기 오염과 관련하여 영국 런던과 스웨덴 스톡홀름은 도심 진입 시 비싼 교통 혼잡세를 부과하고 있고, 독일의 주요 도시에서는 탄소 저배출 차량만 진입할 수 있는 '환경존'을 구축하고 있다.

유럽은 산업 혁명의 진원지로서 일찍이 공업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따라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문제들도 타 대륙보다 먼저 겪게 되었는데, 1952년 겨울 1만 20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런던 스모그 사건은 환경오염이 불러온 대표적인 재앙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들을 겪어오면서 유럽 연합의 국가들은 환경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국제 사회 차원의 노력에 있어서도 좀 더 진보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1972년 파리에서 열린 6개국 EU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각국은 EU 차원의 통일된 환경정책을 마련하는데 합의하였고 이로써 EU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환경정책을 마련하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그런데, 국가나 지역마다 가지는 특수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EU 회원국들이 초국경적이고 통일된 정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과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0여 년간 EU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환경 문제는 국가들이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협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특히, 2001년 니스 조약, 2009년 리스본 조약을 통해 환경 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강화 되고 있다.

현재 EU는 다양한 측면에서 법적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 중에서 'European Green Capital Award¹⁾'는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유럽 내 각 지역사회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경쟁을 통한 동기를 부여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자리 잡았다.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환경에 관한 노력을 기울인 도시에 'Green Capital'이라는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도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게 만들고, 여타 유럽에 있는 다른 지역사회에게는 하나의 롤모델을 제시해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2010년 선정된 스톡홀름을 시작으로, 함부르크, 비토리아-가스테인즈, 낭트, 코펜하겐까지 Green Capital로 선정되었고, 현재 다양한 도시들이 ECGA에 선정되기 위해 다양한 환경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ECGA는 EU의 환경정책과 실천에 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주제이다. 여기에 Green Capital로 선정된 지난 도시들의 환경적인 노력과 결과물들을 조사함으로써, EU의 환경정책의 최신 동향과 이슈를 파악하는데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1) 이하 ECGA로 통일하도록 한다.

II. 본 론

i) ECGA란?2)

1. ECGA의 Framework

ECGA의 근간이 되는 Framework로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삶의 질과 건강, 그리고 자연자원과 폐기물 문제에 집중하는 '6차 환경 액션 프로그램(Sixth Environmental Action Programme)', 도시의 삶의 질과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개선하고자 하는 '도시환경 프로그램(Thematic Strategy on the Urban Environment)', 도시 환경 개선을 통해 유럽을 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리스본 조약(Lisbon Treaty)', 75%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는 상황에서 자연 효율성 증대를 통해 새로운 성장 원천을 개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2020 전략(Europe 2020 Strategy for smart, sustainable & inclusive growth New sources of growth)' 등이 있다.

2. ECGA의 선정 기준

EGCA는 총 12개 기준을 가지고 도시들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를 위한 12명의 패널은 전문 연구원, 컨설턴트, 교수,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좀 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다양한 국적을 가진 패널들을 선정한다.

① Local Contribution to Global Climate Change

EU는 2020년 까지 기후 변화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은 한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며, 각 지자체 별로 주요하게 다뤄야 함을 알려주고 있다.

② Local Transport

효율적인 대중교통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 발전에 기본요소이다. 자동차와 같은 내연기관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대기 오염과 소음 공해의 주요 원인이며, 건강상에 부정적

2) Marie-Helene Vareille, 「Prague EGCA Presentation」, 2012

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런 이유로 EU는 각 도시들로 하여금 대중교통과 자전거, 도보 이용을 장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③ Green Urban Areas & Sustainable Land Use

공원과 잘 정비된 거리, 위락 시설 등은 건강을 위한 재충전, 운동, 여가, 사회 활동의 중요한 요소이며,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조건이다.

④ Nature and Biodiversity

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도시를 좀 더 살기 좋고, 즐겁게 만드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도심 개발에 의해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이 기준은 도시 간 지리적 환경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 항목은 아니지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⑤ Quality of Local Ambient Air

대기오염은 도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생태계에 심각하게 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각종 건물과 기념물을 부식시키는 부차적인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다. EU는 대기오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도시에 있는 생명체의 안전한 대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틀을 마련한 상태이다.

⑥ Noise Pollution

소음공해는 도시민의 스트레스의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이다. 건강 전문의들에 따르면, 소음 공해는 심혈관 질환, 호르몬 이상, 정신질환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 교통수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소음 공해의 정도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

⑦ Waste Production & Management

아직도 EU 회원국 내에서 2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 의해 연간 1톤 이상의 물을 낭비되고 있다. 이러한 낭비를 관리하고 방지하는 것은 도시의 환경 관리의 주요 목표가 되었다. 물을 잘 관리하는 것은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며, 대기, 토양 오염과 같은 다른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다.

⑧, ⑨ Water Consumption & Water Waste Treatment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는 시민들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을 안전하게 공급해야 한다. 도시 차원에서 상수도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와 시민들에게 수질에 대한 정보를 알릴 필요가 있다. EU는 2000명 이상의 도시나 마을은 하수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였으며, 특정 수준 이상의 정화를 거친 후에 방류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였다.

⑩ Environmental Management of Municipality

시 당국의 환경 관리 능력 또한 주요한 기준이다. 환경 문제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지역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환경 관리 능력이 중요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역 캠페인과 시민의식개선 등과 같은 주요한 임무는 개개인이 아닌 시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효과를 발휘한다.

⑪ Eco-Innovation & Sustainable Employment

환경 친화적인 대체 재료를 찾고,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고,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자원효율을 높이는 것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를 위한 환경 전문 인력을 고용하고, 연구 토대는 환경 도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자료가 된다.

⑫ Energy Performance

환경문제는 에너지 사용과 무관하지 않다.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은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현재 EU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원에 대한 관리, 또한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환경 문제를 평가하는 주요한 기준이 된다.

3. ECGA의 효과

ECGA는 Green Capital에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매년 수십 개의 도시들이 ECGA에 선정되기 위해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이는 Green Capital이라는 타이를 자체만으로 엄청난 이미지 개선과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The finalists and winners of the European Green Capital Award provide us with valuable real-life examples of how respect for the environment, excellent quality of life and economic growth can all be successfully combined," ³⁾

환경 담당 집행위원인 Janez Potočnik은 ECGA의 역할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 했다. 유럽 인구의 80%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제적 성장과 환경 보호를 성공적으로 결합하고 이를 현실 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유럽 환경수도의 진정한 역할인 것이다. 실제로 유럽 환경수도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인구가 20만 명 이상이고 대부분의 지역이 'urban area'로 구성된 city라고 명시하고 있다.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거나 대부분이 'rural area'로 이루어져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은 환경보호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매우 바람직한 지역이지만, Green Capital의 선정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을 토대로 우리는 ECGA가 실제 유럽의 환경에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첫째로, 선발 과정에서 유럽 전 영역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환경수도는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 적으로 1개의 도시를 최종 선정하게 되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환경수도가 되기 위해 후보로 지원한 도시는 매년 평균 14개 도시이다. 가장 최근에 최종 선정을 마친 2014년 환경 수도의 경우 총 18개 도시가 지원했고 마지막 단계까지 진출한 도시는 Copenhagen, Frankfurt, Bristol 등 총 세 도시이다. 최종적으로는 1개의 도시가 해당하는 해의 환경수도로 선정되지만 그 과정에서 10개 이상의 도시들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높은 환경 수준 향상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비록 환경 수도 경쟁에서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공간 조성을 통한 유럽 시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유럽 환경수도는 유럽의 다른 도시들에게 롤 모델이 되고 있다.⁴⁾ 환경 수도 선정 및 발표를 통해 도시 개발과 환경 보호의 결합의 현실 사례를 전 유럽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다. 또한 최종 선정된 도시가 어떤 이유로 다른 도시들을 제치고 유럽의 환경 수도가

3) <http://ec.europa.eu/environment/europeangreencapital>

4) Katie O'Neill & PJ Rudden, 『Environmental Best Practice & Benchmarking Report』, 2012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자료와 사례를 보여주고 있고, 이는 매년 기록되고 있다. 따라서 ECGA가 해를 거듭할수록 유럽의 도시들은 그 전보다 더 높은 수준이면서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발표 과정을 통해 일개 도시 차원의 정책 목표가 국가 차원의 목표로 확장될 수도 있다. 2011년 환경 수도인 Hamburg는 전력 생산에서 풍력 발전의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아가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목표치가 독일 국가 전체의 전력생산 비율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정부차원에서 2030년까지 원전 가동을 중지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는데 공헌할 수 있었다.

ii) 역대 환경 수도⁵⁾

1. Stockholm⁶⁾



인구 75만의 스웨덴의 수도 Stockholm은 거주민의 95%가 녹지에서 300미터가 채 안 되는 곳에 살고 있을 정도로, 잘 정비된 도시이다.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대기 환경 개선에 대한 노력이 선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선도적으로 교통혼잡세를 도입하여 자가용 사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시켰으며, 적극적인 녹지 정비 계획을 통해 대기오염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에 비교했을 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감소시킬 수 있었다.(2008년 기준) 2007년부터 도입된 교통혼잡세는 도심의 교통체증량을 20%, 도심 내

5) http://ec.europa.eu/environment/europeangreencapital/press_submenu/101022_winners2010-2013.html

6) City of stockholm executive office Stockholm, 『The first European Green Capital』, 2010

대기 시간을 30~50% 가량 줄이는 효과를 보였다. 그 결과, Stockholm 시 전체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도심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10%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았다. Stockholm 시 자체 조사결과, 도시민의 70% 가량 대기 환경이 좋아졌고, 소음 공해도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50% 이상은 교통혼잡세 이후 교통안전 또한 증가하였다고 밝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런던, 에딘버러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은 Stockholm시의 사례를 바탕으로 교통혼잡세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Hamburg⁷⁾



인구 430만에, 유럽에서 3번째로 큰 항구인 Hamburg는 매년 11,000 척이 넘게 항구를 이용하고, 500여 개 이상의 제조회사가 있는 대도시이다. 규모가 매우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한 다양한 캠페인과 프로젝트를 어필함으로써 두 번째로 수상하게 되었다. 물의 도시라 불리는 Hamburg는 상수도 공급을 100%로 지하수로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과정의 누수율도 독일 평균 7%로 보다 훨씬 낮은 4%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거의 100%의 시민이 300m 이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를 설계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증가시켜 자가용 이용량을 현격하게 줄여서 1990년 이후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5% 이상 감소 시켰다. 여기에 Hamburg시의 17%가 녹지, 8%가 물로 이루어져 있을 만큼 환경적으로 잘 정비되었다. 대체 에너지에 대한 투자 역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7) City of Hamburg, 『Hamburg, European Green Capital 2011』, 2011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소연료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풍력 발전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주요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에 설치된 200,000개의 전구를 고효율 전구로 교체하여 연간 €3.4 million만큼 절약하는 효과를 보고 있고, €18 million을 투자하여 친환경적인 난방시스템으로 교체한 것 또한 좋은 평가를 받았다.

3. Vitoria-Gasteiz



스페인 북부에 위치한 Vitoria-Gasteiz는 전형적인 도시 구역을 친환경적으로 크게 변화시켰다. 현재 총 도시면적의 33%에 해당하는 공공녹지를 보유하고 있고, 그린벨트 영역이 도시 중심을 둘러싸고 있다. 손상된 녹지를 회복시키고 새로이 녹지면적을 확대시켜 나감으로서 대부분의 시민들이 300M 이내의 거리에서 녹지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Vitoria-Gasteiz는 생물다양성과 생태계가 보전을 위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동·식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였고 부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동식물 서식지를 연결시켜 궁극적으로 거대한 하나의 서식지를 형성하게 되었다.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도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결과 물 공급량과 질을 향상시켰고, 누수량이 현격히 감소했다. 더불어, 시

민들의 물소비량을 크게 감소시켰는데, 현재도 1인당 1일 물 소비량을 100리터 아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4. Nantes



프랑스 6대 도시로 손꼽히는 Nantes는 인구 285,000명의 도시이다. Nantes는 녹지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 프로그램을 정착시켰다. 현재 15,500ha의 자연녹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 9,500ha는 습지이다. 지속가능한 물 관리 프로그램으로 2개의 주요 강(르와르강, 에데르강)과 도시의 수요를 잘 통합하여 물 수요와 공급을 잘 조화시켰다.

Nantes는 EU차원의 생태계보호지역들의 네트워크인 Natura2000에 속하는 여러 개의 보호지역과 다른 자연보전지역들에 접하고 있다. 따라서 동·식물의 보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일례로 시민 홍보와 규제 강화를 통해 살충제 사용량을 6년간 85% 감소시켰다.

또한 Nantes는 대중교통, 자전거, 카풀/카셰어링 등에 초점을 둔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장기간 추진해 왔으며, 프랑스 최초로 전기트램을 1980년대에 재도입하였다. 이 같은 과감한 교통정책 추진의 결과로 대기오염이 크게 감소했다. 2005년에 온실가스 배출목록을 작성하고 2007년에 기후변화대응실천계획 수립하였는데,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

량을 1990년 대비 25%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꽃가루 감시 정원을 이용한 '알러지 위해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iii) Hamburg 방문기

우리는 이번 Brussel Immersion Trip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정책 실무자와의 인터뷰와 더불어 2011년 Green Capital로 선정된 바 있는 독일의 Hamburg에 직접 방문해 보기로 하였다. 아쉽게도 Hamburg 환경 정책 관계자와 접촉은 할 수 없었지만, 도시의 여러 명소에 방문하고 현지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환경 수도의 면모를 확인할 수 있었다.

1. Hafen City Project

독일 최대 규모의 항만인 Hafen city는 Hamburg의 상징과 같은 존재이다. DG Environment의 Policy officer인 Marie-Helene Vareille과의 인터뷰를 통해 Hafen city 재생계획이 Hamburg의 환경 수도 선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였기에, 우리는 Hamburg에서 Hafen city를 가장 먼저 방문하였고 보다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었다.

수심이 얇은 Hafen city 지역은 20세기 들어 항만의 하역이 컨테이너를 통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항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Hamburg 도심이 점차 내륙으로 발전하자 강변 유역에 위치한 Hafen city는 시 중심과의 단절과 고립이 심화되었다. 이 같은 Hafen city의 슬럼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Hamburg 시의회는 Hafen city를 2025년까지 대형화, 첨단화 및 정보, 주거, 쇼핑, 문화, 레저 등을 통합적으로 갖춘 복합 항만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재개발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Hafen City Project'라고 한다. 1998년 12월에 발표된 Hafen city 마스터플랜 초안에는 재개발의 밀도, 용도, 홍수방지책, 산업시설, 사회기반시설, 교통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2001년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20년 이상의 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진 Hafen City Project는 도시 경쟁력의 확보와 함께 친환경적 여가문화 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강르네상스프로젝트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다.

Hafen city의 첫 인상은 건물과 수변 공간 그리고 녹지대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⁸⁾이었다. 한편에서는 하역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시민들이 휴식공간에서 여유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 상반된 두 모습이 어색하지 않게 연결되어 있었다. 광장에는 전망대를 설치하여 어디서든 바다를 감상할 수 있도록 트인 공간을 만들었고, 수변 공간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 탑승자를 배려한 여러 가지 형태의 길이 조성되어 있었다. 사전에 조사한 내용 그대로, 단순히 도시경쟁력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여가·문화 공간의 조성이 눈에 띄었다.



친환경적인 랜드마크 빌딩들도 인상적이었는데, 먼저 우리는 세계적 생활용품 회사이자 Hafen city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빌딩으로 유명한 유니레버 본사 건물에 방문하였다. 이 건물의 특징은 내부 중앙을 텅 비워 광장처럼 만들고 1층에 천장까지 일직선으로 트인 지붕을 통해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한 것이었다. 천장에는 햇빛을 강하게 끌어들이는 특수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서 낮에는 자연 조명만을 이용하여 건물 전체를 밝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건물에는 에어컨이 없었는데, 공기의 대류 현상을 고려한 친환경 건축 디자인으로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을 정도로 시원하다고 한다. 그 다음으로 방문했던 곳은 독일 주간지 슈피겔 건물이었는데, 지하 100m 깊이에 열교환 장치를 설치해 지열을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었고 건물 전체를 친환경 자재로 만들었다고 한다. 그 외 다

8) 이범훈;김경배, 『Study on the Waterfront Design strategic of Hafencity Project, Hamburg, Germany - Focused on Hafencity Project of Hamburg』, 2009

른 빌딩들도 빗물을 받아 재활용하거나 화장실에 물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소변기를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3. 대중 교통

Hamburg 대중교통의 원칙은 모든 시민이 300미터 이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라고 한다.⁹⁾ 편리한 대중교통 망 형성을 통해 자가용 이용 빈도를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객을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현지 시민에게 시 청사에 가려면 어느 역에서 내려야 하나고 묻자 3개의 지하철 역(Rathaus, Rodingsmarkt, Jungfernstieg)을 알려주며 어디로 가도 상관없다는 대답을 해주었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의아했지만 막상 그 곳에 도착해 보니 왜 그렇게 대답해 주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세 역이 모두 시청에서 가까웠고 역끼리도 금방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이다. 수상 페리의 운행도 인상 깊었는데, 지하철과 버스만이 대중교통으로 인식되는 서울과는 달리 Hamburg에서는 수상 페리까지 통합되어 대중교통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강변 구역의 접근성을 높이고 배차간격을 짧게 조절해서 현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수소연료 버스와 하이브리드 택시가 점차 확대 운행되고 있었는데, 대중교통의 이용 빈도가 높은 만큼 친환경 버스와 택시의 도입이 온실가스 감축에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3. 그 외의 특징들

Hamburg의 다른 특징으로는 녹지 공원의 비율이 현격히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공원이 2~3블록 건너 하나씩 있어서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삼림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실제로 Hamburg 내에 있는 공원, 정원, 가로수 등을 모두 합친 녹지대의 비율이 Hamburg 면적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쓰레기 매립지도 모두 없애고 그 곳을 녹지대로 재조성하였다고 한다.

풍력발전기를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었던 점도 특이했다. 현재 전체 전력 발전의 25% 가량을 풍력발전을 통해서 얻고 있다고 한다.¹⁰⁾ 이는 북해와 발트 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9) HWV, 『Schnellbahn-/RegionalverkehrRapid Transit /Regional Rail』

10) 최정현, 『풍력에서 미래 찾자 - 독일 함부르크 풍력단지』, 2011

강한 덕도 있었겠지만 환경 보존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의지가 있었기에 이 같은 큰 규모의 풍력 발전 단지가 조성될 수 있었을 것이다. 독일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가동 전면 중단을 목표로 풍력 발전단지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한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원이나 광장에서는 대형 마트용 카트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우리가 병맥주나 캔맥주를 다 마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빈병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유를 물으니 독일에서는 빈병을 모아서 '재활용 용기 수거기'에 반납하면 병에 부과되어있는 보증금(pfand)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¹¹⁾ 보증금 액수는 병 하나 당 0.25유로 가량 한다고 하니 경제적 유인이 매우 큰 편이었다. 덕분에 우리나라 처럼 거리에 술병이 깨진 채 버려져 있는 광경은 좀처럼 볼 수 없었다. 쓰레기 재활용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실제로 실천하기 쉽지 않은 우리나라의 현실과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III. 결론



이상으로 우리는 ECGA의 기본 틀, 선정 기준, 역대 환경 수도 및 선정 이유, Hamburg 방문 사례, 그리고 ECGA가 유럽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가 인터뷰하

11) 염광희, 『맥주보다 병이 더 비싼 나라! 어딘지 알아?』, 2009, 프레시안

였던 Marie-helene Vareille가 이야기 했듯이 환경 수도 정책은 새로운 시도이자 여전히 개발 중인 (very new scheme and still developing) 정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차원의 노력과 유럽 사회의 환경에 대한 큰 관심 덕분에 환경 수도 정책은 벌써부터 유럽의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얼마 전 ECGA에서 코펜하겐이 2014년 유럽 환경수도로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 Competition에서 코펜하겐은 기존 도시들과 달리 '환경혁신 (Eco-Innovation)'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여 지속적인 환경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기업, 대학 그리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노력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해를 거듭함에 따라 환경 수도들이 환경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내고 더 높은 수준의 환경 목표를 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럽의 환경 수도 정책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이다. 유럽 외의 도시들도 유럽 환경 수도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¹²⁾, IUCN(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에서는 자체 인증을 거쳐 2020년에는 '세계 환경 수도'를 선정한다고 한다.

유럽은 다른 지역보다 수백 년 이상 일찍 산업화 과정을 거쳤고, 때문에 각종 환경 문제 상황에 먼저 직면했던 경험이 있다. 여전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각종 환경문제에 대해 유럽은 보다 먼저 문제의식을 갖고 슬기롭고 현명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ECGA는 최근 유럽의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노력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ECGA는 유럽에 있는 다른 지역에 롤모델을 제시해주는 것을 넘어서 세계 전체의 롤모델로서 기능하고 있다. 이는 지금의 성공 사례를 넘어서 지속적으로 발전 중이며, 앞으로의 모습이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12) 연합뉴스, 「창원시 '환경수도' 정책 세계가 주목」, 2012. 6. 21

IV. Appendix - Interview with Marie-Helene Vareille



Q1) Please briefly explain about green capital award.

Basically we are currently working on the 7th environmental action program which will start 2013 for another 10 years. And that will focus more on the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So we will be more integrated in the policy of environment and urban development. This will ensure they become better places to live in and reduce their environmental impact on the wider environment. As the urban environment does not contain legislative measures, and because incentives are important, the European Green Capital Award will play a useful role.

Q2) What is the incentive of being the European Green Capital?

Progress is its own reward. Satisfaction and pride involved in winning this award will make cities invest in further efforts and will boost awareness in other cities. It will also bring advantageous side effects such as increased tourism, more investment and an influx of young professionals.

Q3) What is the goal of this award?

The objectives of the European Green Capital Award are to reward cities that have a consistent record of achieving high environmental standards, to encourage cities to commit to ongoing and ambitious goals for further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to provide a role model to inspire other cities and promote best practices and experience in all other European cities.

Q4) Would you explain how the green capital cities are chosen?

We have 12 independent experts who are conducting technical evaluations for each part. And they receive the application forms from the cities, and then the experts will assess and compare the cities and finally rank and choose the finalist cities. And following this, we have the jury who are all kind of key players in environment. All of them will meet and the finalist cities make a presentation about the vision and achievement of their cities to them. Finally the jury will deliberate and take into account about what they heard and the technical assessments and select the winner.

Q5) How do you think about offering financial support to the winners?

I think the scheme is very new and it's still developing. We might have the budget in the future, so it's possible to give a budget to winner one day. It will be very good.



EUROPEAN
GREEN CAPITAL